• 한문 •

1	②	2	⑤	3	②	4	①	5	①
6	③	7	①	8	⑤	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①
21	③	22	④	23	④	24	⑤	25	⑤
26	④	27	④	28	②	29	③	30	④

1.〔출제의도〕 육서의 원리 및 형, 음, 의 알기

〔해설〕 〈보기〉 牛(소 우, 부수:牛, 획수:4), 宇(집 우, 부수:宀, 획수:6), 雨(비 우, 부수:雨, 획수:8), 愚(어리석을 우, 부수:心, 획수:13)

2.〔출제의도〕 동물을 뜻하는 한자 알기

〔해설〕 豚(돈) 돼지, 犬(견) 개, 羊(양) 양, 馬(마) 말, 虎(호) 호랑이, 象(상) 코끼리

3.〔출제의도〕 친구와 관련된 한자성어 알기

〔해설〕 朋友有信(붕우유신) :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交友以信(교우이신) : 벗은 믿음으로써 사귀어야 한다. 莫逆之友(막역지우) :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4.〔출제의도〕 문장의 내용에 맞는 한자 알기

> 良藥苦於口(양약고어구), 而利於病(이리어병), 忠言逆於耳(충언역어이), 而利於行(이리어행). :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해설〕 手(수) 손, 目(목) 눈, 足(족) 발, 鼻(비) 코.

5.〔출제의도〕 문장의 핵심어 알기

> (가) 勤爲無價之寶(근위무가지보) : 근면함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이다.
> (나) 愼是護身之符(신시호신지부) :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해설〕 이 글은 근면함과 신중함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6.〔출제의도〕 성어의 속뜻 알기

〔해설〕 似而非(사이비) : 비슷하나 다름. 登龍門(등용문) : 입신출세의 관문. 如反掌(여반장) :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움. 背水陣(배수진) : 물을 등지고 친 진으로 '필사적으로 싸움'을 뜻함. 白眼視(백안시) :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흘겨봄.

7.〔출제의도〕 생활에서 성어 활용하기

〔해설〕 그림의 내용은 합격이라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수석(首席)까지 차지한 상황이다.(=錦上添花(금상첨화)), 錦衣夜行(금의야행), 金蘭之契(금란지계), 金石之交(금석지교), 明鏡止水(명경지수)

8.〔출제의도〕 문장의 내용 알기

〔해설〕 同受父母遺體(동수부모유체), 與我如一身(여아여일신). :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을 함께 받아서,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다.

9.〔출제의도〕 한자어의 독음 알기

〔해설〕 和解(화해)

10.〔출제의도〕 절기관련 한자어 알기

> 雨水(우수) : 2월 19일경, 淸明(청명) : 4월 5일경, 穀雨(곡우) : 4월 20일경, 立夏(입하) : 5월 6일경, 夏至(하지) : 6월 21일경, 白露(백로) : 9월 8일경, 霜降(상강) : 10월 23일경

〔해설〕 穀(곡) 곡식, 雨(우) 비

11.〔출제의도〕 성어 완성하기

〔해설〕 塞翁之馬(새옹지마) : '변방 늙은이의 말'로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음'을 뜻함. 馬耳東風(마이동풍) :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말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을 뜻함. 風前燈火(풍전등화) :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로 '매우 위급한 상황'을 뜻함.

12.〔출제의도〕 문장의 내용에 맞는 한자어 알기

> (　　)山, 在女眞朝鮮之界(재여진조선지계), 爲一國華蓋(위일국화개). 上有大澤(상유대택), 周圍八十里(주위팔십리), 西流爲鴨綠江(서류위압록강), 東流爲豆滿江(동류위두만강), 北流爲混同江(북류위혼동강), 豆滿鴨綠之內(두만압록지내), 卽我國也(즉아국야). : (　　)산은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으니 우리나라의 지붕이 된다. 위에 큰 연못이 있으니 둘레가 80리이다.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이고 북쪽으로 흐르는 것은 혼동강이다. 두만강과 압록강의 안쪽이 곧 우리나라 땅이다.

〔해설〕 이 글은 白頭山에 관한 내용이다. 九月(구월), 妙香(묘향), 智異(지리), 金剛(금강)

13.〔출제의도〕 문장의 의미에 맞는 성어 알기

〔해설〕 己所不欲(기소불욕), 勿施於人(물시어인). :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易地思之(역지사지))

〔14～15〕

> 身體髮膚(신체발부), 受之父母(수지부모), 不敢毁傷(불감훼상), 孝之始也(효지시야), 立身行道(입신행도), 揚名於後世(양명어후세), 以顯父母(이현부모), 孝之(　)也(효지(　)야). : (사람의) 몸과 털과 살갗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감히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은 효도의 끝이다.

14.〔출제의도〕 의미가 같은 한자어 알기

〔해설〕 修身(수신) : 몸을 닦음.

15.〔출제의도〕 문장의 내용에 맞는 한자 알기

〔해설〕 '끝'을 뜻하는 한자는 終(종)이다.

〔16～17〕

> 孟子之少也(맹자지소야), 旣學而歸(기학이귀), 孟母方績(맹모방적), 問曰(문왈), 學何所至矣(학하소지의). 孟子曰(맹자왈), 自若也(자약야). 孟母以刀斷其織(맹모이도단기직). : 맹자가 어렸을 때 이미 배웠다고 여기고 돌아왔다. 맹자 어머니가 때마침 베를 짜다가 묻기를, "배움이 어느 정도 이르렀느냐?"하자, 맹자가 대답하기를, "그저 그렇습니다."하였다. 맹자 어머니가 칼로써 그 짜던 베를 잘랐다.

16.〔출제의도〕 한자의 독음 알기

17.〔출제의도〕 '以'의 쓰임 알기

〔18～19〕

> 昔(석), 有桓因庶子桓雄(환인서자환웅), 數意天下(삭의천하), 貪求人世(탐구인세), 父知子意(부지자의), 下視三危太伯(하시삼위태백), 可以弘益人間(가이홍익인간). 乃授天符印三箇(내수천부인삼개), 遣往理之(견왕리지). :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 가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다.

18.〔출제의도〕 '數'의 쓰임 알기

19.〔출제의도〕 문장의 풀이 순서 알기

〔해설〕 아버지가(父) → 아들의(子) → 뜻을(意) → 알다(知).

〔20～21〕

> 君子有三樂(군자유삼락), 而王天下(이왕천하), 不與存焉(불여존언). 父母俱存(부모구존), 兄弟無故(형제무고), 一樂也(일락야). 仰不愧於天(앙불괴어천), 俯不怍於人(부부작어인), 二樂也(이락야). 得天下英才而敎育之(득천하영재이교육지), 三樂也(삼락야). :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 왕 노릇 하는 것은 더불어 거기에 있지 않다. 부모님께서 모두 살아 계시며, 형제가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음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얻어 교육함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20.〔출제의도〕 '樂'의 쓰임 알기

〔해설〕 樂 - (락) 즐겁다, (악) 음악, (요) 좋아하다.
苦樂(고락)-괴로움과 즐거움

21.〔출제의도〕 문장의 내용 알기

〔해설〕 孟子(맹자)의 君子三樂(군자삼락) 중에 '천하에 왕 노릇 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

〔22～23〕

> 學者所患(학자소환), 惟有立志不誠(유유입지불성), 才或不足(재혹부족), 非所患也(비소환야). 無才而不妨爲君子(무재이불방위군자), 有才而不免爲小人之歸(유재이불면위소인지귀), 只在爲學(지재위학), 立志如何耳(입지여하이). : 배우는 사람이 근심할 것은 오직 뜻을 세움이 성실하지 아니함에 있으니, 재주가 혹시 부족한 것은 근심할 것이 아니다. 재주가 없더라도 군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고, 재주가 있더라도 소인이 되는 결과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학문을 하는 것은 다만 뜻을 세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22.〔출제의도〕 한정형의 문장 알기

〔해설〕 只(지) 다만, 耳(이) ～일뿐이다. 耳(이)는 문장의 끝에 쓰여 문장을 한정하는 의미로 쓰인다.

23.〔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통하는 문장 알기

〔해설〕 위 글은 뜻 세움(立志)의 중요성에 관한 글이다.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바가 없다. 書自書(서자서),我自我(아자아) : 책은 책이고 나는 나이다. 男兒須讀五車書(남아수독오거서) :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 學業在汝篤志與否(학업재여독지여부) : 학업은 너의 뜻을 세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 不亦說乎(불역열호). :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24～25〕

> 金先生(김선생), 善談笑(선담소). 嘗訪友人家(상방우인가), 主人設酌(주인설작), 只佐蔬菜(지좌소채), 先謝曰(선사왈), 家貧市遠(가빈시원), 絶無兼味(절무겸미), 惟淡泊(유담박), 是愧耳(시괴이). : 김선생은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일찍이 친구집을 방문하였는데, 주인이 술상을 차리는데 다만 채소로만 안주를 삼고서 먼저 사과하면서 말하였다.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전혀 맛있는 음식이 없고 오직 담백하니, 이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네."

24.〔출제의도〕 문장의 내용 알기

〔해설〕 先謝(선사) : 먼저 사과하다.

25.〔출제의도〕 문장의 풀이 순서 알기

〔해설〕 家貧市遠(1-2-3-4). 矯角殺牛(2-1-4-3) : 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 登高自卑(2-1-4-3) :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守株待兎(2-1-4-3) :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다. 指鹿爲馬(2-1-4-3)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天高馬肥(1-2-3-4) :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다.

〔26～27〕

> 生乎吾前(생호오전), 其聞道也(기문도야), 固先乎吾(고선호오), 吾從而師之(오종이사지). 生乎吾後(생호오후), 其聞道也(기문도야), 亦先乎吾(역선호오), 吾從而師之(오종이사지). 吾師道也(오사도야), 夫庸知其年之先後生於吾乎(부용지기년지선후생어오호). : 나의 앞에 나서 그 도를 들음이 진실로 나보다 앞서면,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났더라도 그 도를 들음이 역시 나보다 앞서면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으니, 무릇

어찌 (태어난) 해가 나보다 앞서고 뒤섬을 알려 하겠는가?

26.〔출제의도〕'乎'의 쓰임 알기

〔해설〕 乎(호)는 '~보다(비교)'로 풀이되며, 於(어)와 같이 쓸 수 있다.

27.〔출제의도〕문장의 내용 알기

〔해설〕 師(사) : 스승으로 삼다.

〔28~30〕

(가) 秋風唯苦吟(추풍유고음), 世路少知音(세로소지음).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 :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니,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없도다. 깊은 밤 창밖에 비는 내리고, 등불 앞에서 만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여.〈崔致遠의 秋夜雨中〉

(나) 秋雲漠漠四山空(추운막막사산공), 落葉無聲滿地紅(낙엽무성만지홍). 立馬溪橋問歸路(입마계교문귀로), 不知身在畫圖中(부지신재화도중). : 가을 구름 아득하고 사방의 산 고요한데, 소리없이 지는 잎 땅에 가득 붉도다. 다리 위에 말 세워 돌아갈 길 묻노라니, 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도 몰랐구나.〈鄭道傳의 訪金居士野居〉

28.〔출제의도〕시어의 속뜻 알기

〔해설〕 知音(지음)은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를 뜻함.
(=知己之友)

29.〔출제의도〕시구의 의미 알기

〔해설〕 늦가을의 아름다운 정취에 빠져 자연과 하나가 되었음(=物我一體)을 표현한 시구이다.

30.〔출제의도〕시어의 특징과 내용 알기

〔해설〕 (나)시의 승(承)구는 붉은 빛깔의 색채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